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연극 광주서도 본다

‘대학로소극장축제 in 광주’ 다음달 7일까지 12개 작품 광주아트홀 등 7곳서 공연

서울 대학로에서 볼 수 있었던 연극작품을 광주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2021 대학로소극장축제 in 광주(이하 대학로 소극장축제)’가 오는 11월7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대학로에서만 열렸던 소극장축제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사)한국소극장협회(이사장 임정혁)는 지난 2007년부터 민간 소극장 창작활성화를 위해 대학로소극장축제를 진행해 왔다. 2019년부터는 ‘대학로소극장축제 in 대구’를 통해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열린 축제를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번이 그 두번째 기획이다.

올해는 ‘소극장part2 : 집중과 선별’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소극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그 확장을 되짚어보며, 사회문화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시점에서 있는 공연예술계에서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번 축제는 (사)한국소극장협회 광주지회와 함께 준비했으며, 공연일번지, 극단 예린소극장, 예술극장 통, 씨어터 연바람, 지니아트홀, 광주아트홀, 문예정터 총 7개 소극장에서 대구·대전·광주·경남·서울 등 총 5개 지역의 12개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26일 시작한 이번 축제는 대전 윤희레이컴퍼니의 ‘나도 말 좀 합니다!’(공연일번지)와 광주 극단 지니컬쳐의 가족극 ‘도깨비 방망이’(지니아



‘2021 대학로소극장축제 in 광주’가 오는 11월7일까지 광주지역 소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마임공작소 판의 ‘잠깐만’(왼쪽), 극단 저면관수의 ‘이혼재판관’ 장면.

트홀)로 문을 열었다.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아트홀에서는 광주뮤지컬단 다락의 ‘아직, 서른’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학창시절부터 17년간 함께 지내온 4인방의 일상 이야기를 다룬다. 취임, 결혼, 가족, 사랑, 이별 등의 이슈를 4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29~30일에는 대구 극단 예린의 낭독극 ‘오발탄’(공연일번지)과 광주 극단 예린의 낭독극 ‘오발탄’(극단예린소극장)을 공연한다.

마당극 형식의 ‘굿-데이(day)’는 각자 다른 고민으로 무당을 찾은 명숙, 미선, 지연의 이야기이며 제목은 ‘굿하는 날’과 ‘좋은날’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있다. ‘오발탄’은 한국사회의 비극을 다룬 소설 ‘오발탄’을 재구성해 1인낭독극으로 선보이는 작품으로 어린이시절 저녁식사 후 가족끼리 둘러앉아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연속극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했던 추억을 소환한



다. 11월에는 우주마인드프로젝트의 ‘스피드-잡스’, 극단 스케치북의 ‘스케치 코미디’, 마임공작소 판의 ‘잠깐만’, 극단 저면관수의 ‘이혼재판관’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극단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으며, 경남 극장 현장의 ‘벚꽃엔딩’도 무대에 오른다.

‘스피드-잡스’는 두 남녀가 ‘노동의 본질과 가치’를 찾아 헤메는 이야기며, ‘스케치 코미디’는 ‘사랑의 편지’와 ‘1루수가 누구야’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작품이다.

‘잠깐만’은 마임, 무용, 마술이 결합된 난버벌 연극으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 밀레의 ‘이삭 줍기’ 등 그림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혼재판관’은 세르반테스가 쓴 작품 중 하나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다룬다. ‘벚꽃엔딩’은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늦은

나이에 중등학교 검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한 어머니, 꿈 많은 소녀였던 누나, 청개구리 반항아 형 등이 전해 근황제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선보인다.

이밖에 스트린드베리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광주배우협회 ‘미스줄리’, 항구 앞 포장마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극단 좋은친구들의 ‘상선’도 볼 수 있다.

축제기간중에는 ‘지역거점 공간으로서 광주 소극장의 활성화 가능성’ 정책세미나를 통해 광주 소극장 문화 및 지원정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세미나는 11월 1일 미로센터 3층 미로극장에서 진행한다.

예매는 대학로티켓닷컴에서 온라인 예매, 및 현장예매, 전화예매로 진행되며, 공연 상세 소개는 축제 누리집에서, 문의는 축제사무국(02-741-4188)으로 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

박상미 작가 초청 ‘한 책 특 콘서트’

전남대 도서관 28일

갑질과 괴롭힘, 언어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타인으로부터 나를 건강한 관계의 기술은 무엇일까?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북콘서트를 열어 눈길을 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관



장 장우권)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도서관 정보마루 빛마당에서 ‘작가 초청 한 책 특 콘서트’를 개최한다. 강사는 올해의 한책인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사진)의 박상미 작가. 박 작가는 그동안 치유, 회복, 공감, 소통을 주제로 강의하고 글을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전남대는 2013년부터 시민과 함께 ‘광주-전남이 읽고 푹 하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도민의 투표를 통해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서 박 작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기술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530-35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예술작은도서관

28~29일 인문학 강좌

강사에 최영화 교수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이번 인문학 강좌는 연극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오는 28~29일 오전 10시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이 강사는 최영화 교수(사진).



‘연극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좌에서 최 교수는 연극의 역사부터 오늘날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1강은 ‘연극이란 무엇인가?’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2500여년 연극사를 조망한다. 셰익스피어를 거쳐 현대연극 거장 피터 브룩에 이르기까지 연극의 예술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 2강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연극’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극의 모습과 역할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로 연극·뮤지컬 연출가다. 1998년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연출상을 수상했으며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등에서 총감독을 역임했다. 062-670-7968. /박성천 기자 skypark@



빛고을예술단, 31일 펭귄마을서 사랑의 콘서트

(사)빛고을예술단은 오는 31일 오후 6시 펭귄마을(광주시 남구 양림동)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코로나19 위기탈출’을 주제로 723번째 사랑의 콘서트를 선보인다. 박광신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빛고을예술단’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진짜 멋쟁이’를 부른 해남 출신 진국이(본명 김명성)와 ‘만나볼래요’의 강진 출신 진이랑(본명 김진)이 초대가수로 출연하며 지스타의 퓨전난타<사진>, 김동규 가수의 7080 통기타 연주, 박용주 음향감독의 색소폰 연주,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희극 ‘폼바’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10-3604-513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어린이들이 3D로 만든 ‘우리의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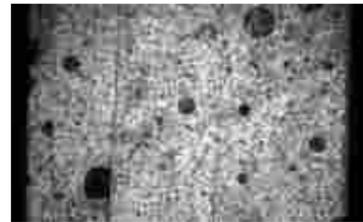
폴란드 푼토 이 라야 국제영화제 간다

ACC 시네마테크와 광주지역 어린이들이 만든 입체(3D)영화가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부문 초청을 받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입체영화 ‘우리의 영화’가 푼토 이 라야 국제영화제 어린이 경쟁부문 초청을 받아 22일부터 24일까지 폴란드에서 상영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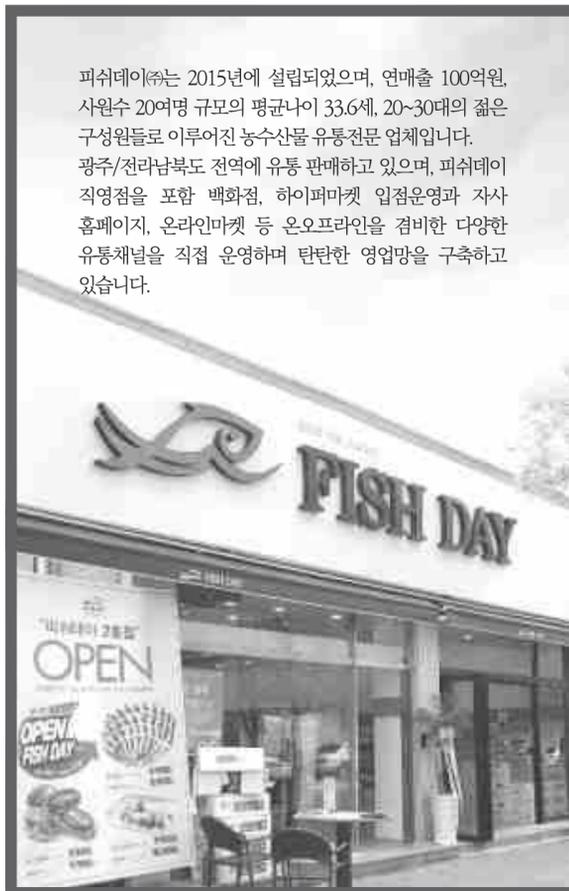
‘우리의 영화’는 ‘ACC 시네마테크’ 필름공동연수에 참여한 어린이 17명이 영상작가 지도를 받아 공동으로 제작한 12분 분량의 단편영화다. 각기 주어진 10초 내외의 분량의 35mm 필름에 그림을 그리고 미디(MIDI) 기기를 통해 즉흥적인 음향을 만들었다. 총 4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영화는 각각 4개의 작품으로 이번 영화제에 소개된다. ‘신나는 호러영화’, ‘글리터 좀비’, ‘여러 개의 그림자’, ‘액체로 만들어진 블랙홀’ 제목이 그것이다. ‘ACC 시네마테크 키즈’라는 단체명과



‘우리의 영화’

17명 참여 어린이들이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푼토 이 라야 국제영화제는 지난 2007년 스페인에서 시작해 독일 ZKM을 비롯한 유럽의 50개 이상 문화예술기관이 개최했으며 세계적인 미디어 작가들이 라이브 공연을 하는 등 500여 명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축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모집분야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선손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담차 납품/배송) 1톤 냉동담차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주요복지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